포스트 휴먼적 영어읽기 교육모델 연구

홍은숙*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The Readers 운영 설계
4. The Readers 운영 결과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포스트휴먼시대의 대학 교양영어 교수학습법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고전 그리스 시대부터 제기된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성찰에 부응한다. 최근 대학 교양영어는 문법과 독해력 증진과 같은 지식 주입과 확대를 지향하는 기능 함양보다는 자율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영어읽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포스트 휴먼적 영어읽기 방법으로 다독 활용법을 제시한다.

이 글은 경북 소재 D 대학교의 교과 연계 비교과 수준별 영어읽기 프로그램인 The Readers의 운영과 성과를 분석한다. D 대학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조교수

교의 교과 교양영어는 네 단계의 수준별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며, 비교과 영어 프로그램 역시 각 레벨 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운영된다. The Readers는 교과 과목 A 레벨 학생들을 대상하는 비교과 다독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는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기능적 측면과 비평적 측면에서 고찰된다.

대학 신입생의 기초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기능적 측면을 무시한 교양영어교육에 몰입할 수는 없는 현실이 있다. The Readers의 운영 결과에 나타났듯이, 다독은 언어의 기능적 향상과 함께 심리적 차원의 자신감과 자율적 지식 창출과 활용 능력 향상을 가져왔다. 수준별 영어읽기 프로그램은 기능적 함양을 추구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생산적 토론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진정한 교양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도서 선정에서부터 생산적 토론에 이르기까지 학습자 중심 학습법은 변화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초래하는 포스트휴먼시대 교양교육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

주제어: 교양교육, 교양영어, 다독, 비교과 영어 프로그램, 포스트휴먼

1. 서론

오늘날 사회적 배경에서 세계화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이미 낡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우리 시대 사회적 상상계(social imaginary)는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에 있으며, 모든 영역은 가령 문화, 인종, 학문분야, 교육방법 등 비물질적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와 경계를 넘어 융화되거나 네트워크로 연계되고 있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은 고정된 정체성(identity)이 아니라 다채로운 특이성(singularity)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경계를 가로질러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포스트휴먼 시대 특이성은 풍부한 콘텐츠와 공감 학습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고,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타자와 소통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때 비로소 차이와 경계 너머 변화의 맥락에서 재정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존의 한계와 경계 너머 초연결성을 지향하는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뇌 과학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전반적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양영어에서 단어와 문법과 독해력 증진과 같은 지식의 주입과 확대를 지향하는 기능 함양 교육보다는 자율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론을 모색하는 선도적 교육기관에서는 교수자들에게 기존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선 활동기반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1)]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교육은 기능적 측면에서 무한 지식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 영역을 확고히 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 학습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2)] 이에 근거해 대학 교양영어에서도 기능적 함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교류하면서 타인과 세계와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영어읽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다독(extensive reading)이라는 기존의 영어읽기 방

---

1) 김지현,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의 특징과 의의: 하버드대학 '새 교양교육(New General Education)'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3, 2014, p. 228.

2) 세기 히로시, 박성민 역, 『나를 위한 교양 수업』. 시공사, 2015, p. 7.

법론에서 네트워크화된 주체로서의 '포스트 휴먼적 영어읽기'의 가능성을 찾는다.

국내 영어교육에서 영어읽기는 미취학 시기부터 대학 교양영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도되는 중요한 학습법이다. 교육정책 측면에서 고찰했을 때, 2015년 영어교육안(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기본방향은 1) 의사소통 역량(소통과 문화교류), 2) 자기관리 역량(자기 주도적 영어학습), 3) 공동체 역량(공동체 참여, 대인 관계, 포용력), 4) 지식 정보처리 역량(디지털 정보화시대) 강화에 있다. 즉 영어읽기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공동체 참여와 연대,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 학습이 우리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Bernhardt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영어수업을 통해서 영어에 노출되는 EFL 환경에서 영어읽기는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3] 하지만, 대학 교양영어라는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읽기수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비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선도하는 영어읽기 교수학습법과 사례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다독이론과 선행연구를 경북 소재 D대학교의 수준별 영어읽기 프로그램 The Readers에 응용하여 구체적인 포스트 휴먼적 다독 교수학습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글은 The Readers 운영사례를 통해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영어 다독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한다. 또한 이 글은 수준별 영어읽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 나아가 다독 프로그램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기존의 교양영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진정한 교양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3) Bernhardt, E. B., *Reading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Theoretical, empirical, and classroom perspectives*, Norwood: Ablex, 1991.

2. 이론적 배경

2.1 다독 연구

1) 기능적 측면

영어읽기 교수학습법은 학습주체와 방식에 따라 정독(intensive reading)과 다독으로 구분된다. 정독을 활용한 영어읽기는 교사 중심으로, 다독을 활용한 영어읽기는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독은 기능적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글의 구성 및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영어읽기 방식이라면, 다독은 책을 많이 읽어서 텍스트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즐거움과 정보를 얻는 영어읽기이다.[4]

EFL 환경에서 정독과 다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5] 이 연구의 대상인 D대학교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정규 과목에서는 정독 수업을,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수준별 영어읽기라는 다독 수업을 진행하여 상호보완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Harold Palmer(1968)에 의해 다독 개념이 소개된 이후, 다독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다독은 쉽고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6] 기능적 측면의 어휘와 문법 혹은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에

---

4) Davis, C., "Extensive Reading: an Expensive Extravagance?"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49-4, 1995, pp. 329-336. ; Bell, T. & Campbell, J., "Promoting Good Reading Habits: The Debate," *Network* 2-3, 1996, pp. 22-30.

5) Nuttall, C.,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Oxford: Heinemann, 1996. ; Renandaya, W. A., "The Power of Extensive Reading", RELC Journal 382, 2007, pp. 133-149.

6) Day, R. & Bamford, J.,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New York: Cambridge UP, 1998.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다독은 교과서에 요점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직접 책을 읽고 경험하는 학습이다. 이와 같은 다독 학습법이 기능적 함양을 저해하리라는 우려가 있지만, 다독이 정독 못지않게 영어능력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7] 다독은 읽기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읽기습관의 형성과 더불어 방대한 어휘를 문맥에 맞게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8] 다독의 효용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능적 측면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Saragi, Nation, Meister의 연구는 모르는 단어를 접할 때 문맥상 어휘를 습득하면서 어휘력이 증대함을 증명하였다.[9] 다독이 즐거움, 정서발달, 그리고 인격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 너머, 기능적 함양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최근 다독이 영어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들로 인하여 다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lley 2000; Stanovich, 2000; Tanaka & Stapleton, 2007).

2) 비평적 시각

다독은 이상과 같은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함양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같은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비평적 시각으로 고찰될 수 있다. McLaughlin과 DeVoogd는 비평적 토론을 해야

---

7) Day, R. & Bamford, J., Ibid, 1998. ; Krashen, S. D., *The Power of Reading*. Portmouth, NH: Heinemann Publishing Company, 2004.

8) Richards, J. C., Platt, J. & Platt, H.,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Harlow, Essex: Longman, 1992.

9) Krashen, S. D., Ibid, 2004.

한다고 주장한다.[10] 독자의 능력은 텍스트에 명백히 드러나는 이야기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인지적 연관을 맺어야 한다.[11] 다독의 주체는 학습자이면서 독자이다. 독자로서 학습자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타자와 연대하는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 영어읽기를 해야 한다. 2015년 영어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된 공동체 역량 강화에서 보듯이, 비평적 시각에서의 영어읽기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 삶에 애정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효하다.

오래 전부터 지식 축적을 위한 암기식 교육보다는 지식활용을 위한 활동식 교육의 효용성이 강조되어왔다. 간접적이고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학습에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학습이 교과와 비교과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활동식 수업은 학습자가 책을 읽고, 보고, 느끼고, 쓰면서, 스스로 학습 세계를 구축하는 학습이다. 즉, 진정한 학습은 지식이 지혜로 내면화되는 데 있다.[12] 대학 교양영어에서 지식을 융화하고 지식을 실현하는 비판적 사고와 생산적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평적 시각에서 다독은 세상에 대한 좀 더 넓고 깊은 수준의 이해와 통찰을 훈련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D 대학교의 다독 프로그램 The Readers는 10주차에 낭독회를 진행한다. 낭독회에서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교류, 독자들 간의 상호교류, 독자와 교수자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진다. 다독의 완성은 책

10) McLaughlin, M. & Devoogd, G., *Critical Literacy: Enhanc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Text.* New York: Scholastic, 2004.

11) Widdowson, H. G.,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Oxford UP, 1984.

12) 백승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2017, p. 40.

을 많이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소통과 교류이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독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은 의견 교환과 조별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텍스트를 읽고 내면화할 수 있다. 읽고 토론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숙고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인성 함양 교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2 자율적 활동 중심의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다독의 장점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다독 프로그램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ACE 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으로 비교과 과목이 교양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교과 교양영어와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영어 프로그램이 각 대학교에서 개발되고 있다.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목표로 자발적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개선, 교육 지원시스템 개선 및 성과 관리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한다. 그 중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양교육 강화, 전공교육 내실화, 비교과 교육의 내실화에 있다. ACE 사업 이전에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으로 운영되었던 비교과 과목은 ACE 사업 이후 추진 전략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맞게 교과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D대학교의 경우, ACE 사업 이전에는 산발적으로 학기별 연관성에 대한 고려 혹은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의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당시의 니즈(needs)를 고려한 과목이 개설되었다. ACE 사업 이후에는 4단계의 교과과목 교양영어 과목별로 비교과 과목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과목을 지속적으

로 운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무와 운영방법과 교과 연계는 대학 교양교육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 도구이다. 신행자의 교양교육체제 연구 역시 교양교육 목적과 과정을 분석하는 데 비교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별 프로그램의 형태나 일회적인 것으로, 교과과정과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다.[13]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실천적 교양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적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ACE 사업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인다. ACE 사업이 정착되면서 교육과정 시스템 혹은 행정 시스템 구축, 인증 시스템, 만족도 등이 주로 연구되었고, 교과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사례와 역량성취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분야이다. 비교과 과목은 교과에서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역량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ACE 사업이 정착되면서 비교과 자체가 중요한 역량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교과 연계 비교과 과목 The Readers의 역량성취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한다.

비교과 영어 프로그램은 교과 과목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영어수준과 관심사항 등 학습자들의 다양성과 특이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Rogers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자 역할을 강조한다.[14]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자기주도형 비교과 과목의 전체 진행과정에서 자기 발달 과정을

---

13) 신행자, 「의미 있는 교양교육 학습 성과 성취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과정 체제 연구」, 『교양교육연구』 7-5, 2013, p. 486.

14) Rogers, C. R., *Freedom to Learn for the Eighties.*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1983.

지켜보고 능력을 점검하는 자기 주도적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타인의 능력과 역량을 인정하는 태도 또한 기를 수 있다.

D대학교의 비교과 영어 다독 프로그램 The Readers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텍스트 선택에서부터 Book Report 작성과 낭독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Michael West가 다독을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개인차를 인정하는 읽기 장려활동으로 보았듯이,[15] The Readers는 모두가 함께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습자 중심의 다독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은 수준별 영어읽기 교재의 레벨 변화 과정에 따라 자기 발달 상황을 알 수 있다. 자기 주도적 수준별 영어읽기 학습법은 포스트휴먼시대의 핵심 가치인 생각하는 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자기관리능력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The Readers 운영 설계

3.1 The Readers 설계

The Readers는 ACE 사업의 일환으로 2016학년도 1학기에 신설되어, 매 학기 2개 반씩 2017년 2학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The Readers는 아래의 Day와 Bamford의 성공적인 다독을 위한 교수학습 특징에 근거해서 설계되었다.[16]

---

15) West, M., *Learning to read a foreign language and other essays on language-teaching.* London: Longman, Green, 1955, p. 302.

16) Day, R. & Bamford, J.,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for Teaching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P, 2004, pp. 2-3.

다독 교수학습법	The Readers적용
① (수업 외의 시간에도) 많이 읽는다.	O
②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읽기자료	O
③ 학습자가 원하는 텍스트를 자율적으로 읽기	O
④ 즐거움, 정보, 이해 차원의 읽기	O
⑤ 읽기 자체가 보상이 된다.	O
⑥ 언어능력에 맞는 읽기자료를 제공한다.	O
⑦ 자율적 선택을 통한 묵독	O
⑧ 정독보다 속독	O
⑨ 교수자는 목표/방법 설명하는 안내자	O
⑩ 교수자는 읽기행위의 모범이다.	O

① Krashen(Reading Hypothesis)에 의하면, 학교에서와 학교 밖에서의 자유로운 읽기활동은 읽기능력 향상의 중요한 지표이다. 한 학기 총 10주, 매주 2시간 진행되는 The Readers에서 학습자들은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 수업시간에 책을 다 읽지 못할 경우, 학습자들은 도서를 대출해서 강의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읽을 수 있다.

② 학습자들은 대학생 수준에서 윤리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문제를 제기하는 책들, 드라마와 뮤지컬로 각색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책들, 축약된 세계 명작을 읽으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③ 학습자들은 첫 시간에 책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어수준 특히 어휘력에 맞는 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독서 후 학습자들은 Book Report를 작성한다. 둘째 시간부터는 같은 조원들의 Book Report를 읽은 후 다른 학습자들의 평가와 후기를 근거로 다음에 읽을 책을 선택한다. 학습자들은 감동 받았거나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해서 Book Report에 쓰거나, 줄거리를 요약정리하거나, 개인적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한다. 같은 조의 학생들이 다

음에 읽을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Book Report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다독용 교재는 짧고 흥미로우며 독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쉬워야 한다.[17] 다독은 학습자에게 단순한 영어능력 향상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The Readers는 시험과 평가를 대비한 학습과정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꾸준한 독서 활동을 통해 낭독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⑤ 비교과 다독 프로그램 The Readers에서의 활동은 교과 교양영어 수업에 반영된다. 총 10주 프로그램에서 8회(8주) 이상 출석을 하고 8권 이상 책을 읽고 Book Report를 작성한 학생들은 교과과목에서 추가 2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매 학기별 참가자 중 10명은 장학금을 받는다.

⑥ The Readers는 교과과목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기능적 측면과 성과주의적 영어읽기를 지양한다. The Readers에서 학습자들은 정확한 번역, 문장구조분석, 혹은 사전찾기를 하지 않는다. The Readers에는 독서이후 Book Report 작성과 낭독회가 있을 뿐, 퀴즈나 시험과 같은 성취도를 테스트하는 절차가 없다. 즉 The Readers는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공부이다.

⑦ The Readers는 Oxford Book Worm(OBW) 시리즈를 교재로 활용한다. 학습자들은 Starter부터 1, 2, 3, 4, 5, 6 레벨, 총 7단계로 분류된 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주로 어휘를 기준으로 언어능력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담당 교수와의 상담과 동료 학습자들이 작성한 Book Report를 참고하여 다음에 읽을 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묵독한다.

---

17) Nuttall, C., Ibid, 1996.

⑧ 학습자들은 어휘 등 영어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기 때문에 영어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독이 가능하고, 다독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같은 조의 학습자들에게 책을 추천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나 속박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속독을 한다.

⑨ The Readers에서는 교수자의 강의가 없다. 다만 교수자는 첫 시간에 프로그램 진행 방법이나 취지를 설명하고, 매 시간 간단하게 동기를 유발하거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준별 영어읽기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다독 프로그램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표면적 이해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보 획득의 수준을 넘어서는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18] The Readers 진행 과정 동안 담당 교수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Book Report를 토대로 일대일 혹은 조별 상담을 통해 진척 과정을 체크하고, 학습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독서 활동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책 선택 및 레벨 조정 등에 있어서 조언을 한다.

⑩ 학습자들이 독서를 하는 동안, 교수자는 같은 공간에서 독서를 한다. 교수자 역시 한 명의 학습자로서 함께 독서를 하여 학습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교수자는 일방적 강의를 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자율적 독서를 코치하고 학습자별 수준과 역량에 맞추어 독서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19]

---

18) Pearson, P., "What we have learned in 30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51st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2001, San Antonio, TX. ; Luke, M. & Freebody, P., Eds. Constructing Critical Literacies: Teaching and Learning Textual Practice. New York: Routledge, 1999.

19) 이태억, 「4차 산업혁명과 대학 교육」, 『대학교육』 195, 2017, p. 50.

3.2 The Reader 운영

1) 연구대상

D대학교의 교과 교양영어는 네 단계의 수준별 영어수업(A, B, C, D)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교과 영어 프로그램은 교과 교양영어와 연계해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고, 각 레벨 별로 다른 비교과 과목이 운영된다. The Readers는 교과 과목 A Level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과목이다.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에는 A 레벨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7년 2학기에는 B 레벨의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글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실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표 1〉 2016년 1학기 The Readers 신청 학생 수

2016-1학기 A 레벨 인원	273명
2016-1학기 The Readers 사전설문조사 인원	47명
2016-1학기 The Readers 수강 인원	43명
2016-1학기 The Readers 사후설문조사 인원	35명
2016-2학기 The Readers 수료 인원	33명

A 레벨 학생들 중 다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사행정연구시스템(UDRIMS)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고 사전설문조사를 한다. 사전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청자들의 약 65퍼센트는 교과 영어수업 이외에 스스로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레벨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학습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비교과 다독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The Readers 유형의 다독 프로그램을 이전에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다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사전설문결과는 다양한

비교과 영어수업이 국내 영어교육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했고 또한 수준별 영어읽기를 위한 교육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표 2〉 교과 영어 수업 외에 영어학습을 한다.

응답 인원	47명
예	30명
아니오	17명

〈표 3〉 The Readers 유형의 과목을 처음 수강한다.

응답 인원	47명
예	47명
아니오	0명

2) 수업진행

① 독서

수준별 영어읽기 프로그램은 5인 1조로 구성된 조별 독서 클럽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독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10주차에 진행되는 낭독회는 조별로 준비된다.

② Book Report

학생들은 작품의 전반적인 줄거리 보다는 특정 사건 혹은 맥락을 중심으로 한 주에 한 장의 Book Report를 작성한다. 학습자는 Book Report를 쓰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작성된 Book Report는 담당교수의 피드백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조의 학습자들과도 공유된다. 학생들은 영어 책을 읽고 싶어도 어떤 책을 선택해야할지 잘 모르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조원들의 Book Report를 읽고 자신이 다음에 읽을

책을 정한다. 방대한 책 중에서 자신의 영어수준에 맞으면서 흥미와 관심에 부합되는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원들의 Book Report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교재선택

영어 읽기자료를 선택할 때 학습자의 언어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독에서는 학습자들의 영어실력보다 높은 수준의 교재를 선택하여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지만, 다독에서는 어려운 책을 선택하면 흥미를 저하시키고 지속적인 읽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영어실력과 작품의 유명도와 관심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을 선택한다. The Readers는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Bamford(1984)가 주장한 다독을 위한 이상적 자료인 수준별 영어읽기 도서인 Graded Readers를 준비한다. 수준별 읽기자료는 외국어 학습자를 위해서 단계별로 제한된 어휘와 문장구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책을 의미한다.[20] The Readers에서는 대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되는 윤리적 논쟁과 시사점이 있는 에세이와 세계 명작 등 다양한 책을 구비한다.

④ 교실 밖 활동

학습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치된 책 중에서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선택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책을 대출하여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독서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다 읽기 못한 책을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서 읽을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읽기 활동을 즐긴다.

⑤ 독서카페

다독에서는 독서 환경과 공간은 중요하다. The Readers는 행복

20) Richards, J. C. & Schmidt, R.,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 applied linguistics.* London, UK: Longman, 2002.

한 책읽기와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The Readers는 International Lounge에서 진행된다. International Lounge는 엄숙하고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한 카페 분위기의 공간이다.

International Lounge에는 수준별 영어읽기 교재뿐만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International Lounge에는 수준별 읽기자료를 관리하고 대출하는 조교가 있으며, 원탁형 책상과 일반 의자가 마련된 독서공간이 있으며, 편안한 소파가 구비된 독서공간도 있다. Graded Readers를 비롯한 영어교재가 충분히 비치된 International Lounge는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독서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책 읽는 분위기는 자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독 운영에 중요하다. 동료 학습자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독서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독서 자체를 즐거운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D 대학교는 수준별 영어읽기 프로그램을 위한 교양교육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였다.

⑦ 낭독회

10주차에 진행되는 낭독회는 작품을 소리 내어 읽고 작품 토론을 하는 시간이다. 낭독은 비판적 토론의 효용성 이전에 감동과 유희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함께 읽었던 책의 중요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독서 경험을 내면화하면서 The Readers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학습자들과의 소통과 융화의 경험이다. 즉 낭독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험이며, 대인 관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이다. The Readers는 읽기와 토론 중심의 학생활동중심 프로그램이다. 학생활동중심의 읽고 토론하기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 삶에 애정을 갖고 당

면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효하다.

4. The Readers 운영 결과

The Readers 운영결과는 10주차에 작성된 사후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 학생 47명 중 35명이 사후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래는 어휘와 속독 능력에 맞춘 기능적 함양 관련 설문조사와 비교과 다독 프로그램의 효용성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이다.[21]

4.1 언어적 기능 함양

〈표 4〉 문맥 속 단어 의미를 유추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응답	①	②	③	④
인원수	0명	3명	28명	4명

〈표 5〉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응답	①	②	③	④
인원수	0명	3명	28명	4명

〈표 6〉 영어 속독부분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응답	①	②	③	④
인원수	0명	5명	25명	5명

21) 5점 척도에서의 보통이라는 답을 피하기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한다.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표 7〉 전반적인 영어읽기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응답	①	②	③	④
인원수	0명	1명	29명	5명

〈표 8〉 다독은 교과과목 영어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	①	②	③	④
인원수	0명	5명	25명	5명

〈표 9〉 The Readers를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분포

성적	A+	A	B+	B
인원수	17명	7명	5명	4명

〈표 4〉와 〈표 5〉에서 나타났듯이, 사전 없이 영어책을 읽었을 때 문맥상 어휘를 가늠하는 과정 중에 어휘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식 설문조사에서도 어휘력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표 6〉과 〈표 7〉에서 보듯이,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는 속독 능력이 향상되었다. 어휘력과 속독실력의 향상은 전반적인 영어실력의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주관식 설문조사에서도 속독 실력이 향상되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있다. 영어실력 향상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사후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다독을 통한 영어의 기능적 향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2 비평적 시각과 전반적 만족도

〈표 10〉 학기가 끝난 후에도 개별적으로 다독을 할 생각이다.

응답	①	②	③	④
인원수	0명	9명	22명	4명

〈표 11〉 영어책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응답	①	②	③	④
인원수	0명	5명	26명	4명

〈표 12〉 The Readers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서술형)

인원수	내 용
20명	자신감(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어짐)이 생겼다.
9명	영어실력향상(어휘와 독해력)
3명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3명	독서의 즐거움을 느꼈다.

The Readers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술형 설문조사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만족도에 대한 평가이다. Clément이 소개한 자신감은 외국어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과 낮은 불안감을 뜻한다(417-448). 영어 자신감은 EFL 상황에서 영어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22] 영어학습 성취도를 분석할 때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23] 영어에 대한 자심감이

22) 배태일,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중고등학교 비교 연구」, 『영어교육연구』 24-1, 2012, pp. 167-186.

23) 배태일,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준별 영어 성취 모형 연구」, 『인문연구』 75,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와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는 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기인식을 강화시키는 건설적인 피드백(조별 Book Report 참조하기), 따뜻한 수업 분위기(독서카페, 자율독서클럽), 학생중심 모둠 활동(조별토론준비) 등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밝힌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있었다는 학생들의 평가이다. 즉 Deresiewicz가 교양교육의 목표로 정의한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자아형성'과 '폭넓은 사유'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24]

5. 결론

포스트휴먼 시대의 대학 교양영어 교수학습법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이 글은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와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한다.[25] 독서의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적 함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시대 지적 매트릭스(intellectual matrix)에 부합되고 더 나아가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시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은 대학 교양영어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어읽기는 다른 학습법에 비해 접근성과 지속성이 강하다. The

2015, pp. 249-281.

24) 윌리엄 데레즈위츠, 김선희 역, 『공부의 배신』, 다른, 2015, p. 229.

25) 이성호, 『대학교육과정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p. 47.

Readers의 낭독회와 같은 참여식 활동수업은 건설적 피드백, 가치와 태도의 공유, 생산적 토론을 통한 소통 혹은 융화와 네트워크로 연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책은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좋은 책과의 만남으로 인해 형성되는 설렘, 열정, 자극, 각성, 깨달음, 용기, 충만감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양식이다. 수준별 영어읽기 The Readers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인격형성을 지향을 목표로 설계된 교과 연계 비교과 다독 프로그램이다. The Readers는 기능적 함양에 치중해온 기존의 영어읽기의 한계 너머 진정한 교양교육으로서의 나아갈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신입생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능적 측면을 무시한 교양영어교육에 몰입할 수는 없는 현실이 있다. The Readers의 운영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수준별 영어읽기 학습법이 실질적 기능 향상을 가져왔다. The Readers와 같은 교과 연계 비교과 영어 다독 프로그램은 영어의 기능적 함양을 추구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생산적 토론을 물론이거니와 자율적 자기관리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양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대학 교양영어는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학업 기초적 과목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 연계 비교과 수준별 영어읽기는 학업의 기초영역 등 도구 과목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이다. 도서 선정에서부터 생산적 토론에 이르기까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법은 곧 변화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초래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존재의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지현,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의 특징과 의의: 하버드대학 '새 교양교육(New General Education)'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3, 2014, pp. 193-247.

배태일,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중고등학교 비교 연구」, 『영어교육연구』 24-1, 2012, pp. 167-186.

배태일,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준별 영어 성취 모형 연구」, 『인문연구』 75, 2015, pp. 247-282.

백승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2017, pp. 13-51.

신행자, 「의미 있는 교양교육 학습 성과 성취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과정 체제 연구」, 『교양교육연구』 7-5, 2013, pp. 467-493.

이태억, 「4차 산업혁명과 대학 교육」, 『대학교육』 195, 2017, pp. 44-51.

Bamford, J., "Extensive Reading by Means of Graded Reader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2, 1984, pp. 218-260.

Bell, T. & Campbell, J., "Promoting Good Reading Habits: The Debate," *Network* 2-3, 1996, pp. 22-30.

Clément, R., Dörnyei, Z. & Noels, K., "Motivation, self-confidence and group cohes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Language Learning* 44, 1949, pp. 417-448.

Davis, C., "Extensive Reading: an Expensive Extravagance?"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49-4, 1995, pp. 329-336.

Day, R. & Bamford, J., "Teaching Read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1998, pp. 124-141.

Elley, W., "The potential of book floods for raising literacy level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46, 2000, pp. 233-255.

Pearson, P., "What we have learned in 30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51st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2001, San Antonio, TX.

Renandaya, W. A., "The Power of Extensive Reading", *RELC Journal* 382, 2007, pp. 133-149.

Tanaka, H. & Stapleton, P., "Increasing reading input in Japanese high school EFL classrooms: An empirical study exploring the efficacy of extensive reading", *The Reading Matrix, 7-1,* 2007, pp. 115-131.

2. 단행본

교육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세기 히로시, 박성민 역, 『나를 위한 교양 수업』. 시공사, 2015.
이성호, 『대학교육과정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윌리엄 데레저위츠, 김선희 역, 『공부의 배신』. 다른, 2015.
Bernhardt, E. B., *Reading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Theoretical, empirical, and classroom perspectives*. Norwood, NJ: Ablex, 1991.
Day, R. & Bamford, J.,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New York: Cambridge UP, 1998.
Day, R. & Bamford, J.,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for Teaching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P, 2004.
Kelly, L. G., 25 *Centuries of Language Teaching*. Rowley, MA: Newbury House, 1969.
Krashen, S. D., *The Power of Reading*. Portmouth, NH: Heinemann Publishing Company, 2004.
Luke, M. & Freebody, P., Eds. *Constructing Critical Literacies: Teaching and Learning Textual Practice*. New York: Routledge, 1999.
McLaughlin, M. & Devoogd, G., *Critical Literacy: Enhanc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Text*. New York: Scholastic, 2004.
Nuttall, C.,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Oxford: Heinemann, 1996.
Palmer, H. E., *The scientific study and teaching of languages*. Oxford: Oxford UP, 1968.
Richards, J. C., Platt, J. & Platt, H.,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Harlow, Essex: Longman, 1992.
Richards, J. C. & Schmidt, R.,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 applied linguistics*. London, UK: Longman, 2002.
Rogers, C. R., *Freedom to Learn for the Eighties*.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1983.
Stanovich, Keith E., *Progress in understanding reading: Scientific foundations and new frontiers*. New York: Guilford Press, 2000.
West, M., *Learning to read a foreign language and other essays on language-teaching*. London: Longman, 1955.
Widdowson, H. G.,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Oxford UP, 1984.

(**투고일**: 2017. 10. 30 **심사완료일**: 2017. 12. 19 **게재확정일**: 2017. 12. 21)

이름 : 홍은숙
소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주소: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전화번호: 010-7517-6468
전자우편: eshong@dongguk.ac.kr

[Abstract]

An Educational Model for the Posthuman Extensive Reading

Hong, Eun-Sook

This paper sheds light on how to teach rather than what to teach in developing th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college English education. Today's socal backgrounds for English education aim at a new class of English reading to enhance the capability to create and unitize knowledge. This study presents an extensive reading class model as a posthuman English reading. It analogizes the educational design and effectiveness of *The Readers,* which is a ten-week extra-curricular extensive reading program designed for the freshman students in D university.

As the freshmen's basic English language skills are getting low, it is hard to ignore the functional language ability in higher educat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students show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nfidence and critical comprehension as well as language literacy. This learner centered English reading program from choosing books to productive discussion shares the idea of the General Education in the posthuman era.

Key words: college English, extensive reading, extracurricular English reading program, general education, posthuman